

소리 없이 강하다...대세 예능인 김숙의 '파워시대'

'따귀소녀'부터 '쑥크러시'까지...못 말리는 캐릭터 제조기



김숙은 최근 방송가 우먼파워의 주역으로 통한다. 데뷔하고 20년 넘도록 큰 고비 없이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 그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갓속', '가모장'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18일 열린 '밤블레스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김숙

▲1975년 7월6일생 ▲1995년 KBS 대학 개그제 은상 ▲1995년 KBS 1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콘서트' '웃찾사' 개그프로그램 등 출연 ▲'무한걸스' '속사정' '인간의 조건' '고향을 부탁해' '영자의 전성시대' '남과 함께-최고의 사랑' 시즌2 출연 ▲SBS 러브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진행 ▲2016년 제24회 KBS 연예대상 토크&쇼부문 여자 최우수상 ▲2017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2인자'라고 알보다가는 큰코다친다. 방송인 김숙은 요즘 주요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나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는 으레 등장하는 이름이다. 그만큼 '핫'한 존재라는 얘기다. 송은이처럼 뛰어난 창의력이나 기획력이 없어도, 이영자처럼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 자신만의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하여 김숙의 '파워시대'.

친화력 앞세워 '여성 예능시대' 선봉 예능·교양 안 가려 출연 프로만 9편 자신 낮추고 동료 받쳐주는 캐릭터 송은이·이영자 제2의 전성기 '발판'

김숙(43)은 소리 없이 강하다. 송은이와 이영자가 현재 방송가를 주름잡는 '투톱'이라지만, 그 둘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한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유일하게 '교집합' 되는 인물이고, 그 둘조차도 김숙을 빼놓으려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다. 그가 '중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1995년 KBS 12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해 20년 넘게 큰 고비 없이 우직하게 버티고 선 김숙이야말로 진정한 '위너'다.

●동료 받쳐주는 뛰어난 친화력과 적응력

송은이와 이영자가 올해 대중의 관심 속에 들어오며 전성기를 맞았다면, 김숙은 이 두 사람에게 그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숙은 그동안 캐릭터나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지 않고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반경을 넓혔다. 여기에 친근한 매력과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2015년 '여성 예능시대의 부활'을 알렸다. 당시 남성 스타들 위주로 재편된 방송가에서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어디서 남자가 건방지게" "남자 목소리가 어릴 답장을 넘느냐"며 가부장시대를 꼬집는 '가모장'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남성들에 비해 비교적 방송 출연 기회가 적었던 여성 예능인들을 주류로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덕분에 김숙은 관심과 호감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연예인들에게 붙여지는 '갓'(god)이라는 수식어도 얻어 '갓속'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됐다.

김숙의 장점은 어떤 프로그램에도 녹아드는 뛰어난 적응력이다. 예능과 교양, 시사파와 케이블, 종편을 가리지 않고 기획의 도대로 프로그램을 살린다. 현재 김숙이 출연중인 예능프로그램만 9편. '풀 뜯어먹는 소리', '밤블레스유', '배워서 남줄라', '연애의 참견', '배틀트립', '비디오스타' 등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에서도 김숙은 각각 매력을 잘 살린다.

또 자신만이 도드라지거나 튀지 않고 동료를 받쳐주는 친화력도 손꼽힌다. 과거 '무한걸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리즈 등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동료들을 돋보이게 해주면서 제 몫도 챙겼다.

●'따귀소녀' '난다 김' '쑥크러시'...캐릭터 제조기

김숙은 개그우먼 경력으로 다져진 내공을 화려한 입담으로 펼쳐낸다. 김숙의 어록까지 생겨날 정도로 입만 열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을 쏟아냈다. 덕분에 '김숙에게 빠져든다'라는 뜻의 '쑥크러시'는 그만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보다도 김숙의 최대 장점은 각종 캐릭터에서 빛났다.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김숙 특유의 입담과 외모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모은 '따귀 소녀'부터 "4000만원만 팽겨 주세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사천만', 로비스트 린다 김을 패러디한 '난다 김'까지, 김숙이 가진 이미지와 신체조건 등을 잘 이용해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그의 절친인 송은이와 이영자를 비롯해 그와 함께 한 번이라도 호흡을 맞췄던 방송사 PD들은 김숙의 강점으로 "웬만한 남성들 못지않은 배포와 숨겨진 남성성, 남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친근한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년 지기' 이영자 '가상 남편' 윤정수 '최강 절친' 최강희 '찰떡 콤비' 송은이

김숙의 '사라인'

1995년 데뷔해 햇수로 24년이다. 왕성한 방송활동을 해온 김숙(43)은 그만큼 연예계 인맥도 화려하다. 서로 밀고 끌면서 활동을 돕는 '인(人)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영자, 아낌없는 주는 20년 지기

이영자는 김숙의 4년 선배다. 1991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이영자가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누릴 때 김숙은 KBS 12기 공채개그맨으로 출발했다. 개그계는 선배배 위계질서가 확실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이제 자매처럼 지낸다. 이영자는 "김숙은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할말은 하는 당당한 후배님"이라고 했다. 김숙은 "영자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나뉘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다. 둘은 올릴라 '밤블레스유'에 이어 7월6일 시작하는 예능

'랜선 라이프'도 함께 진행한다.

●윤정수, 유일한 로맨스 상대

'골드미스' 김숙이 유일하게 로맨스로 엮일 때가 있다. 바로 방송인 윤정수와 함께 할 때다. 예능프로그램 '남과함께:최고의 사랑'을 통해 가상 부부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한 두 사람은 시청자로부터 '진짜 커플'이 되면 좋겠다'는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40살이 훌쩍 넘은 두 사람이 프로그래머에서 보인, 달달하면서도 살벌한 결혼생활이 크게 인기를 얻자 '현실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받은 것도 사실. 남녀 사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윤정수도 김숙과의 관계를 두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남겼다.

●최강희, 언제나 죽이 맞는 '최강 절친'

배우 최강희는 '김숙과 친구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최강희가 라디오

DJ를 할 때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애정'을 나눈다. 일상에서 둘이 함께 보낸 시간도 상당하다. 죽이 맞는 여자친구와 놀다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는 법. 최강희도 김숙에 이어 어느덧 '골드미스' 대열에 합류했다. 최강희는 "김숙, 송은이와 놀 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런 최강희를 응원하려고 그가 출연하는 드라마 현장에 간식차를 빼지않고 선물하는 이는 다름 아닌 김숙이다.

●송은이, 성공시대 함께 이끈 '파트너'

송은이 곁의 김숙, 김숙 곁의 송은이는 서로 최상의 파트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예능콘텐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절친' 사이를 넘어 일을 도모하기 시작한 이유는 김숙이 맞은 '위기' 때문이다. 방송 녹화 전날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은 김숙이 낙심해 하와이로 떠나겠다고 하자, 송은이가 '우리끼리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시작한 방송이 바로 '김생민의 영수증'을 탄생시킨 팟캐스트 '비밀보장'이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접수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등 과거사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28일 영진위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과거사 특위)가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제보 및 조사신청을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특위는 별도 외부 전문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와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 그리고 영화계 제보 및 조사신청 대상 사건을 조사한다.

이수만, 한중경연대상 최고경영자상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와 중국 대표 언론사 인민일보 인민망이 공동 주최한 '2018 한중경연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수만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한중경연대상'에 참석, 한국 대중문화 세계화 및 케이팝의 비약적 성공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수만은 "저희 콘텐츠와 셀러브리티들이 중국과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시너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기초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 '문화산업의 중심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윤종민 감독의 '공작' 111개국 수출

윤종민 감독의 '공작'이 111개국에 수출됐다. 28일 배급사 CJ E&M에 따르면, '공작'은 5월19일 막을 내린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의 미드나잇스크리닝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았다. 북·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프랑스·폴란드·영국·스페인 등 유럽권 국가에 판매됐다. 호주·뉴질랜드·홍콩·일본·타이완 등은 개봉일을 논의 중이다.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북한 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간 은밀한 거래를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이 출연한다.

윤미래, 내달 5일 새 정규앨범 컴백

가수 윤미래가 7월5일 새 정규앨범 '제미니2'를 발표한다. 힙합을 토대로 한 블랙뮤직의 다양한 장르 12개 트랙이 실린다. 윤미래가 16년 만에 선보이는 '제미니'(Gemini)의 두 번째 시리즈 앨범이다. '메모리스' '메디테이션' '끝없는 바다 저편에' 등이 수록된 2002년 작 '제미니'는 현재까지도 명반으로 손꼽힌다. '제미니2'에 앞서 윤미래는 프리퀀 행태의 곡 '노 그래비티'에 이어 강렬한 힙합 트랙 '가위바위보'를 잇달아 공개했다. 윤미래는 이번 음반으로 오랜만에 음악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7월14~15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콘서트 '윤미래'도 연다. 솔로 콘서트는 12년 만이다.

YG,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YG엔터테인먼트(YG)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YG엔터테인먼트를 일자리 으뜸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했다. YG는 청년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고용 안정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YG는 154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며, 청년채용 비중이 88%를 차지할 만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 일·생활 균형 실천,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